

# 성경 예언 해설집 <22회>

## 미가

본문(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나라.

### 해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 사람으로 이사야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찬미하고 유다 왕국이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듯이(사 9장, 11장) 미가도 이사야와 같은 사상으로 글을 썼으니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목자(메시아)가 나온다고 하였다.

예수교가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미가의 예언대로 응한 것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다.(마 2:5)

유다 지방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은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남북으로 분국된 이후 왕국이 점차 쇠퇴하고 외국의 침략으로 국가(國基)가 흔들리니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장차 시온의 영광이 찾아온다고 역설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지자들은 종교적 입장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애국 정신이 투철하여 왕을 보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왕에게 권고하고 왕들이 우상을 위할 때는 망한다고 경고하였다.

미가는 이사야와 교류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모방한 흔적이 있으니 이사야의 글을 옮겨 놓은 듯한 부분이 있다. 미가서 4장 1-5절은 이사야서 2장 1-4절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이니 두 사람의 글이 같은 것은 신의 계시로 썼다기보다 인간의 정치사상으로 보여진다.

선지자들의 영적 수준을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 예언하였으나 선민의 축복이 유다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글을 전폭적으로 믿었으나 이방 아랍인과 손을 잡는 것은 시온주의가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시온주의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통일되어야 선지자들의 예언과 부합된다. 지금과 같이 가자 지구와 요단 강 서부 지역이 이방인의 수중에 있고 동 예루살렘 시온 산 성전터가 이방인의 영토로 굳어지고 있으니 선지자들의 예언은 유대인의 소망일 뿐이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유다 왕국 망국 이후 지금까지 2천6백 년간 부르짖는 예루살렘의 영광은 허공을 뚫는 메아리도 그 소리도 점차 사라지고 대다수 이스라엘 국민들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유대인이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남으려면 시온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교의 성경관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처형한 죄악으로 유대인은 저주받은 자요, 시온의 영광은 하늘의 세 예루살렘이라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예언하였으나 2천 년간 소망하는 시온의 영광, 예수의 재림 소식이 끊어졌으니 예수교의 소망도 사라져 가고 있다.

## 스가라

### 감람나무의 정체

본문(속 4:7-10)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뿔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응하니 그에게 있을지이다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을 흘려내는 자는 온 세상에서 주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는 자니라 (스기라 4:11-14) \_ 그림 출처: https://youtu.be/Q1Yc\_kk7aD8?7=83

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눈이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

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돌이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리라.

### 해설

스가라는 성경을 쓴 선지자들 중에 말기의 사람으로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직의 자손이다. 에스겔이 성전에 관한 계시를 많이 받은 것같이 스가라도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았다. 성소의 등대는 생시에 알고 있었으나 평상시 볼 수 없었던 감람나

등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였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스룹바벨이 격파한다는 말이니 스룹바벨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자이니 평지가 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말이다.

“스룹바벨을 멸시하는 자 누구냐. 일곱 눈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고 한 것은 여호와와 신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은 명시하였다. 그런즉 스가라가 본 계시는 스가라와 같은 시대 사람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가라의 기사는 2천5백여 년 전 과거사가 아니요 영적 스룹바벨, 감람나무인 오늘의 이긴자를 말하였으니 본문에서 명시한 그대로 금 같은 기름, 이슬 성신이 이긴자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으니 스가라의 예언은 오늘에 응하였다.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하여 천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천사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였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 명시하였다. 성경학자들은 4장에

등장한 스룹바벨은 포로 당시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 왕국 왕손으로, 바사 왕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귀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 스룹바벨이 본국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총괄하여 성전을 완성한 사실이 없고 인접국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 4장 본문에는 태산 같은 악의 세력도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고 다림줄이 그에게 있어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완공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당시 인간 스룹바벨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니 잘못된 해석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였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스룹바벨이 격파한다는 말이니 스룹바벨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자이니 평지가 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말이다.

“스룹바벨을 멸시하는 자 누구냐. 일곱 눈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고 한 것은 여호와와 신과 능력이 그에게 있음은 명시하였다. 그런즉 스가라가 본 계시는 스가라와 같은 시대 사람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가라의 기사는 2천5백여 년 전 과거사가 아니요 영적 스룹바벨, 감람나무인 오늘의 이긴자를 말하였으니 본문에서 명시한 그대로 금 같은 기름, 이슬 성신이 이긴자의 몸에서 발산되고 있으니 스가라의 예언은 오늘에 응하였다.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이긴자와 이긴자를 키우는 영모이니 두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에서 주 하나님을 모신 자다. 온 세상에서 주를 모신 자라 한 것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없다는 말이다.

스가라는 요한 계시록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고로 두 사람의 기사는 짝이 맞는 기록이 전장(全章)에 분포되어 있으니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가라와 계시록을 같이 참조하면 완성자로 오시는 구세주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스가라가 본 등대(燈臺)는 순금 등대로 일곱 등잔이 등대에 붙어있고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은 등잔에 담겨서 일곱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 일곱 등불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 촛대니(계 1장, 2장) 성신 받은 성도요 구원 얻은 자들이니 보혜사(保惠師) 성신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감람나무를 떠나서는 없는 것이다.

첫 언약으로 모세가 기록한 성소의 광경을 보면 성소에서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대 곁에서 일곱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나무 기름을 등잔에 부으면서 등불을 간검(看檢)하였다.(출 27:20-21)

※ 감람나무의 유래는 노아 시대 홍수 직후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돌아온 기사(창 8:11)와 모세 시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으로 성소에 등불을 밝힌 것(출 27:20-21)과 스가라 시대 감람나무는 사람으로 장차 올 것을 말하고(속 4장) 요한은 흰옷 입은 사람이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계 1:13-16) 그런즉 감람나무는 구세주로 올 것을 태고 시대부터 암시적으로 점차 정체를 밝히었으니 여러 시대에 걸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감람나무에 관한 기사를 쓰게 한 것은 성경의 기사대로 본체가 올 때에 그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무지하고 소경이 된 오늘의 거짓 목자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니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등대의 구조 설명은 출 37:17-24 참조, 두 감람나무는 속 4장과 계 11장 참조)\*

차승도

# 유럽 군주의 왕관에 백합 문장은 ‘단군’의 고대 히브리어다

## 1면에 이어서

### 부여계 마자르족의 삼엽문 금동관

서양에서는 5세기 말, 프랑크 왕국의 초대 왕 클로비스가 고트족에 쫓겨 암사슴이 지나는 얇은 강을 따라 구사일생하게 되었고 그 강가에서 발견한 노란 아이리스(백합)를 쥘어 투구 위에 꽂아 다가올 승리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 후로 프랑스 국왕들은 백합을 왕가의 문장으로 삼았다



마자르족의 '삼엽문 금동관,에서 '삼엽문'은 단군(檀君)을 표현한 것이다. 향가리를 세운 마자르족은 단군을 조상신(祖上神)으로 섬겼다.



유럽 왕실과 미합중국의 깃발에 백합 문장

대 히브리어)이 유럽 일대 군주들의 왕관 형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양의 많은 군주가 '단'의 이름을 새긴 왕관을 착용하게 한 까닭은, 단군의 자손에서 백합(성경에서는 이긴자 구세주를 상징 \_ 「호세아 14장 5절」)으로 오시는 왕중왕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

이제그대로 성경 창세기 4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대표하는 장자 '단'에게 만국의 백성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장래 일을 예언한 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증손자 '단'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승리제단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의인들을 키우고 계신다. 회복된 에덴동산이자 회복된 삼

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진정한 세 예루살렘이요 곧 승리제단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에 승리제단을 건립하여 의인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기후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범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진과 전쟁 그리고 흉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뉘엿뉘엿 감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태선 기자



단(단)의 독수리 외당  
상단 사진은 고조선 유물의 <단(Dan)의 독수리 외당>이며, 이 외당에 새겨진 문양은 이스라엘 사사(士師)시대에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올드네케브 문자)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수리와 같은 저 단군의 백성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단군의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단지파를 가리킨다. "여기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곳은, 동방의 땅골 땅 모퉁이에서 의인(구세주)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영국 왕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한반도이다.(이사야 41장 1-9절)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48>

### 석가모니의 진실고백(眞實告白) - 2

금강경에서 석가모니와 제자인 수보리와 대화 장면 중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 대화의 뜻을 알면 기가 막힌 것이다.

###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 第 7

何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非法 非法者 何以一切賢聖皆以無爲法而有差別 하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비법 비비법 소이저하 일체현성개이무위법이유차별

왜냐하면,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신 법은 다 취할 수도 없고 말씀을 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일체의 현인과 성인은 모두 무위법(생명의 변화가 없는 법신부처님의 참해탈의 법)인데 (현재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예] 대반열반경 15권(大般涅槃經) 범행품(梵行品)의 2

復次善男子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謂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以是事故現 復次善男子 言本無者 本無六波羅蜜 以無六波羅蜜故 修行凡夫 苦行之心 難能難及 故言本無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謂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是事故現 復次善男子 言本無者 本無六波羅蜜 以無六波羅蜜故 修行凡夫 苦行之心 難能難及 故言本無 言本有者 本有凡夫修苦行心 謂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是事故現

또 선남자여, 본래에 있었다는 것은 범부가 고행을 닦아서 아누다리삼막삼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현재 네 가지 마군(四魔=煩惱魔 陰魔 天魔 死魔)을 일컬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본래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 본래부터 여섯 가지 바라밀다가 없었다는 것이니, 본래 여섯 바라밀다가 없었으나 범부가 고행하는 마음을 닦아서 이에 아누다리삼막삼보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해설] 그러므로 석존께서는 위와 같은 뜻을 제자인 수보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며, 일체현성(一切賢聖)이라고 함은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인의 증거(證果)는 바로 평등심에 바탕을 둔 보살행(菩薩行)을 말하며 또한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위의 법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생전에 무위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말은 제자들에게 입에 광채가 나도록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무위법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제자가 없어서(혹시 제자들은 석가모니 몰래 뒤에서 뒤편을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석가모니가 금강경을 설한 때가 70 전후의 나이로 알려져 있는데 수보리는 눈치가 빨라 어설피게 석가모니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는데 금강경의 중반을 넘으면 엄청난 게 나온다.\*

明鐘

### 불설미륵내시경 (佛說彌勒來時經)

我曹欲持是上佛及諸沙門 阿若曷世時上佛及諸沙門 내가 조(曹)씨로서 부처와 모든 사문의 위에 있을 것이다.